

칼럼

글로벌 리더의 조건②



서정진  
정치외교학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신문은 각 사업단을 만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 목표를 들어보고자 본다.

연재순서

- 1회 :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융합형 글로벌 인재
- 2회 :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현장연수와 실천봉사

# ‘현장·실천’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 전문가 키운다

우리 학교의 정치외교학과와 국제대학이 함께 추진하는 국제화 특성화 사업, 즉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는 기존의 유사한 대학 국제화 시도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장 중심’과 ‘실천 중심’이라는 두 가지 가치와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외형적인 모양새나 수치로 계산되는 국제화 지수에 집착하던 단계는 이미 마감하였으며, 이제는 그야말로 교육과 실천의 연계를 통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problem-solving)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커뮤니티가 당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점진적 혹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구촌 사회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대안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 국제화를 위한 국제화 시대

### 이미 마감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우리 경희대학교는 현장중심/실천위주의 국제화 특성화 사업에 적합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이미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대학이 설립 이후 추진해 온 인류, 문명, 평화 등 거대 담론 이외에도 구체적 실천 경로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대학은 향후 본 사업단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실천/현장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국내외적 토대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단순히 국내 차원에서 교육과 실천을 연계해 온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다각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이미 경희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 사업단은 이러한 학교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 개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구화 시대의 각종 격차 문제 및 개발 이슈를 해소하고 선도하는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대학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들과 연계할 활동들은 지구사회봉사



단(GSC), 경희 해피하우스(Kyung Hee Happy House) 등이 있다. GSC는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해 ‘캄보디아 씨엠티푸 크나즈름 마을 농촌 개발모델 개발사업’을 비롯해 연해주, 베트남, 몽골 등 저개발국의 지역공동체 건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다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랑의 물레산다’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하나로 ‘경희 해피하우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홀몸 어르신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교내 실천 프로그램 참여가 인증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으로 적극 권장될 것이며, 이는 현장에 기초한 다양한 격차 해소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본교의 대표적인 교육-실천 연계 프로그램으로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글로벌 NGO 탐방 등이 있다. 학생들은 유엔 및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으며, 2006년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2012년까지 약 63명의 학생들이 UN DESA, UNDP, UN DPI, UN Governance Center, FAO, CONGO,

Forum Asia, UN ESCAP, UNESCO, UN PRME, CIVICUS, SEAMEO, Pax Christi International, AICESIS, WHO 등의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한 바 있다. 글로벌 NGO 탐방은 하계 및 동계방학을 활용해 세계 NGO를 탐방하고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이다. 전세계 공공기구나 NGO의 활동상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민간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격차 해소에 앞서는 현장을 경험하고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사업단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등에서 수행되는 국제적 교육-실천의 기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후 현장 경험에 기초한 연구 활동 및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글로벌인재, 지구화 시대의 각종 문제 해소하고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

그리고, 우리 사업단은 참여 학생들의 해외연수와 인턴활동을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정치외교학과에서 주도해 오던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계연수 프로그램에 국제대학 학생들도 참여하고, 국제대학에서 진행해 오던 존스 홉킨스 대

학, 푸단 대학, 오사카 대학 연수 기회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도 주어진다.

필자가 지도 교수로 참여했던 201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동계 연수 과정의 일례를 통해 교육과 연수, 교실과 현장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연수 중이던 학생들을 데리고 워싱턴 소재 미국 국무부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북한인권 대사로 활동하는 로버트 킹 대사의 초청에 의한 자리였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미국의 인권 외교, 그리고 북한의 현실 등 실제로 강의 시간에 토론하였던 주제들을 놓고 바로 핵심 정책 담당자와 워싱턴 한 복판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

현장 중심/실천 위주라는 아이디어와 슬로건이 그저 공염불이나 미사여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확인되고 향후 다시 점검되는 현상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참여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각 분야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인턴 활동들에 대해서도 사업단 예산이 큰 폭으로 지원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 중심, 실천 위주’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국제화 사업을 통해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큰 꿈을 키워 나가는 글로벌 인재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교양리포트⑬ 인간의 가치 탐색

# 삶의 무게와 그가치의 탐색, 유학생도 ‘열공’하는 인기탐



홍승태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인간의 가치탐색의 교육목표는 학부 1학년 학생들에게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유기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의미를 획득하고 ‘좋은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준다.

“人固有一死, 或重於泰山, 或輕於鴻毛” 한자(漢字)로 쓴 이 말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언뜻 낯설어 보이지만, 중등교육을 받은 중국인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춘추살인의 명문이다. “사람은 진실로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휴머니티스칼리지 중핵교과 《인간의 가치 탐색》의 교재 서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한(漢)나라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의 말이다. 죽음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도대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경희대학교에 입학한 유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 온 가치를 탐색하는 작업은 국적, 민족, 성별을 초월해 “인간이란 무엇이며, 그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어가 아직 유창하지 못한 1학년 유학생들을 위해 휴머니티스칼리지는 별도의 전용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들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이렇게 두껍고 어려운 책을 유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이다.



교재에 실린 동서양의 고전 텍스트들은 대부분 각국의 언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어서, 유학생들은 모국어 번역을 먼저 찾아 읽고 이해한 후 한국어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이중 부담을 안고 있지만, 한국어가 서툴다고 해서 이해와 사고력의 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교재에 실린 공자·맹자·장자·사마천·루쉰의 글들을 이미 원문으로 독서한 학생들이 많고 그 이해력도 높다.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정약용의 원문을 읽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통

한 소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용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 두꺼운 교재는 정답지가 아니라 탐색의 재료들이며, 성찰과 사색의 화두를 던지는 대화집이다. 인생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교재는 기본 재료를 제공할 뿐, 그 재료를 사용해 ‘탁월한’ 요리를 만드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강의의 관건은 그 재료들의 질문방식과 상호 대화에 있다. 수많은 동서양 고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탁월한 대화와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을 보

여준다는 점이다. 공자와 소크라테스,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오래전 그들이 대답하고자 한 문제들과 사유의 방식, 탐구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스스로 되묻는 시도는 사실 1학년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며, 끝날 수도 없다. 다만 한 학기 동안 평생의 화두로 삼을 만한 질문을 발견한다면, 이 강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존재의 의미는 삶이 나에게 물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내 자신이 세계를 향해 던지는 물음이다. 나는 거기에 나의 대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단지 세계가 주는 대답에 의지할 뿐이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의 말처럼, 스스로 질문하는 인간, 성찰하고 탐구하는 인간, 실천하는 인간이 바로 ‘휴머니티스’이며, 《인간의 가치 탐색》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

서두에서 필자가 인용했던 사마천의 말은 사실 완결된 문장이 아니다. 바로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이어지며 끝을 맺는다. “用之所趨異也.” “그 죽음을 어떤 방향(목적과 의미)으로 사용(선택)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죽음의 무게는 곧 삶의 무게이다.